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죽은 사람들」 속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 거부와 남성 화자 왜곡의 이중적 역할*

고 리 안

I. 서론

음식은 인류 문명의 가파른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의 생존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물질이다. 인간 생존과 음식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는 음식이 삶을 통제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음식이 인간의 생존과 사회문화적 영향 측면에서 인간 행동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를 상기해 보았을 때,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 속 음식의 재현들은 음식과 인간의 삶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비추어 다시 해석하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A*

*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 논문 내용 중 일부분을 바탕으로 쓰여짐.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음식을 거부하거나 갈구하는 더블린 여성들의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다. 가부장제와 젠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이스의 소설 속 음식은 가부장제에 마비된 더블린 여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음식을 갈구하는 더블린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에 마비된 그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The Dead”)의 몰리 아이버스(Molly Ivors)나 『초상』의 단테 리오던(Dante Riordan) 부인처럼 남성 권위에 맞서 음식을 거부하는 인물들도 그려낸다.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 이 두 여성은 「이블린」(“Eveline”)의 이블린(Eveline)이나 「죽은 사람들」의 모르칸 자매(Misses Morkan)처럼 종속적인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이스의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 여성들의 등장이 모두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조이스의 「죽은 사람들」과 『초상』 속 인물들과 음식 사이의 관련성 연구는 미리암 오케인 마라(Miriam O’Kane Mara)와 고영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고영희는 아일랜드 대기근 후속 세대들의 “사후 기억”(postmemory, 4)에 주목하면서 대기근의 트라우마와 이를 이용한 식민 권력의 생명 정치(biopolitics, 7)를 아일랜드인의 아버지의 원인으로 보았다. 고영희는 더블린 사람들이 도덕적 양심보다 음식을 선택하는 관행은 기근 동안 이루어진 영국의 생명 정치 통제와 규제에 대한 아일랜드의 종속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Kho 48). 마라는 「죽은 사람들」과 『초상』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예로 들며 여성들이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음식과 정치 및 젠더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을 끌어내고 있으며(Mara 94), 그녀들은 과도한 반응으로 식사를 거부함으로써 한정된 여성적 역할을 피하고 공적인 담론과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일랜드의 정체성에 다

시 참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다(97). 그리고 음식 거부는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로 아일랜드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며, 분열된 정체성을 재건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4).

이처럼 조이스의 작품에 드러나는 음식과 젠더의 관련성이 논의되긴 했지만, 젠더 역할과 음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젠더 불균형에 대한 조이스의 인식이 여성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 재현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연구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조이스의 작품 속 화자가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 구조와 같은 편향적 관점에서 여성 인물들을 오도하며 그들의 저항 행동을 가렸기 때문이다. 화자는 가부장적 시선에서 남성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중요한 만찬을 망치는 몰지각한 여성으로 만든다. 따라서 본고는 조이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음식 거부의 태도가 함축하는 가부장제와의 관련성 연구와 화자의 시선에서 왜곡되는 젠더 불균형의 불편한 사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저항이 왜 음식 거부 행위로 나타나는가? 남성은 육체적인 우월함과 더불어 권력의 상위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무력 저항은 쉽게 저지되어왔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거부 의사를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무력적이지 않은 저항 의지의 한 형태로서 음식을 거부한다. 음식 제공자는 음식을 상대방에게 분배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권한을 통해 생존권에 대한 권력을 갖지만, 동시에 음식 거부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음식 취득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권력에 회유되지 않고 종속을 거부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즉 생존권에 대한 무심함으로부터 상대 권력에 타격을 줌으로써 주체성을 찾고 오히려 음식을 제공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또한, 식욕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기에 음식 거부는 그 원초적 욕구를 참아내는 것을 통한 강한 저항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죽은 사람들』과 『초상』의 만찬 장면에서 음식은 권력자, 즉 가부장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제 거부에 대한 저항 의지 표현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제에 마비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남성적 무력과 여성 지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심리적 저항 방법이었다.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아일랜드의 종교적·사회적 관습 안에서의 단식 전통에서 이어진 행동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고대 아일랜드 민법 센추스 모르(Senchus Mor)에는 트로스쿠드(troscud)라는 단식 투쟁의 고대 선례가 있었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단식을 하거나 부당한 희생자가 그를 해친 사람을 상대로 단식을 할 수 있는 법이었다(Ellmann 12). 후에 이 전통은 아일랜드 가톨릭에 전해졌고,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Saint Patrick)이 신에 대항하여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단식했다는 설이 있다. 음식 거부의 계보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단식 투쟁으로 이어진다. 단식 투쟁은 1916년 부활절 봉기 이후 민족주의적 대의를 지배하며 행해졌던 저항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단식 투쟁은 그 당시 페미니즘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 운동가의 단식 투쟁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Ellmann 11).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단식 투쟁한 대표적인 인물은 테런스 맥스위니(Terence James MacSwiney, 1879~1920)이다. 그는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단식 74일 만에 아사했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 단식 투쟁의 계보는 IRA(Irish Republican Army)가 이어간다. 모드 엘먼(Maud Ellmann)은 아일랜드 단식 투쟁이나 참정권 운동이나 간디의 경우, 개인이 종교, 젠더, 국가 등 집단의 이름으로 굶주렸고, 그들의 순교는 각자의 집단에 정체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한다(6). 더블린 여성들 또한 여성 평등과 자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아일랜드 독립운동이 맞물리는 과도기적 시대 상황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단식 투쟁 계보를 잇는 저항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의 음식 거부 행동은, 우리가 화자의 의도대로 글을 읽었을 때 충분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가부장적인 화자의 시선

에서 여성스럽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일랜드의 현대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는 만찬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여성들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 화자의 시선 밖에서 다시 잘 들여다보면 두 여성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젠더 “수행”(Butler 522)을 거부하는 의미 있는 혁명적 행동이다. 버틀러는 젠더 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부아르가 ‘여성’이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할 때, 그녀는 분명히 생물학적 사실로서의 성과 그 성의 문화적 해석 또는 의미로서의 젠더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그 구별에 따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이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고, 몸이 여성이라는 역사적 관념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몸이 문화적 기호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한정된 가능성에 순종하여 자신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육체적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근본적인 의지가 발원되는 힘을 시사하며, 젠더는 문화적 생존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용어는 항상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젠더 수행의 속박 상황을 더 잘 제시한다. 따라서 생존 전략으로서의 젠더는 분명 처벌의 결과가 따르는 수행이다. (Butler 522)

버틀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육체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젠더의 문화적 생존 “전략”을 주장한다.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문화적 생존을 위해 젠더 수행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는 이미 정해진 젠더 수행의 틀을 벗어났을 때 규제를 통해 우리에게 처벌을 내린다(Butler 522). 젠더화된 몸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문화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반복해서 수행한다(Butler 526). 하지만 미스 아이버스와 단테는 사회적 처벌을 감수하고 가부장으로부터 음식을 받는 순종적 젠더 수행을 거부한다.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서 남성은 가부장으로서 음식을 공급하고 여성은 그 음식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섭취해야 했다. 두 여성의 거부는 상징적으로 “젠더화된 정체성의 재생산”(Butler 524)을 단절하는 새로운 능동적 여성상의 수행을

의미한다. 버틀러의 설명처럼 이러한 젠더 역할을 거부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두 여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젠더 수행 거부의 결과로서 지나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거나 무리에서 배제되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처벌의 설정을 유도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화자이다. 화자는 곧 사회 제도, 사회적 시선이다. 조이스는 “반복된 연기”(a performance which is repeated, Butler 526)에서 벗어난 두 여성의 능동적인 여성상의 수행을 극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남성 중심적 화자를 이용한다. 적어도 이 두 작품에서, 조이스의 화자는 여성 주체와 여성 예술가에게 적대적인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조장한다(Norris 217).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이끄는 대로 두 여성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가부장적 억압 상황을 상기하고 이해해야 한다. 조이스는 우리 자신을 주관적인 여성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페미니스트, 텍스트에 저항하는 독자, 비평가 및 회의론자로 젠더화함으로써 화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계속 반대하도록 이끈다(Norris 217).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조이스의 가부장제 저항 관점에서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와 『초상』의 단테의 만찬 음식 거부를 젠더 역할 수행의 상징적 거부로 보고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더블린 여성들의 음식 거부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가부장제의 젠더 억압에 대한 저항임을 밝히고, 여성들의 음식 거부를 의미 없는 아집처럼 보이게 하는 정교한 화자의 남성 편향성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려 한다. 조이스는 남성 중심적 화자를 통해 젠더 억압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내재화된 가부장적 시선을 자각하게 하고 있으며, 역으로 가부장제의 여성 희생에 대한 사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II. 「죽은 사람들」: 미스 아이버스의 젠더 역할 수행 거부

「죽은 사람들」¹⁾에 대한 비평은 대부분 주인공 가브리엘의 인식 성장을 의미하는 에피파니(epiphany) 측면에서 거론되어왔다. 가브리엘과 달리 미스 아이버스는 가부장적 화자의 시선 밖에 머물기 때문에 조이스가 부여한 민족주의자라는 타이틀 이외엔 주목받지 못했다. 그녀는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 인물 중에서 가장 주체적인 여성이다. 그럼에도 미스 아이버스는 가브리엘의 심리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혹은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존재해 왔다. 미스 아이버스에 대한 민족주의 관련 비평이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시선과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브리엘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녀의 도전적 행동은 두 사람 간의 민족주의와 예술의 정치성 대립으로만이 아니라 젠더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읽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미스 아이버스는 그 시대의 깨어있는 지식인 여성으로서 아일랜드 여성의 해방적 역할에서도 기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시 아일랜드 여성의 대학 입학 허용에 대한 “대학교 문제”²⁾를 화제로 꺼내어 대화한다(D 163-64). 이 대목은 그녀가 민족주의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문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녀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임과 동시에 여성들의 억압 상황을 목도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그녀가 지식인 여성, 페미니스트 민족주의자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화자는 미스 아이버스의 이러한 부분들을 무심히 대하면서 가브리엘의 심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미스 아이버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독자들 역시 그런 초점을 비판의식 없이 따라가

- 1) 본고의 『더블린 사람들』의 해석은 열린책들, 2013년 출판, 역자 이강훈 『더블린 사람들』을 인용함.
- 2)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국의 엘리트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의 고급 대학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여성의 대학 입학 허용 여부는 이 문제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Norris 217).

다 보면 어느새 가부장제에 동화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오히려 미스 아이버스의 저항적인 행동을 불편하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는 미스 아이버스 때문에 기분이 상한 가브리엘의 감정에 휩쓸려 미스 아이버스를 싫어하게 되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 물론 주인공 가브리엘에 비해 미스 아이버스의 등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야기 흐름에 있어 주변 인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짧지만 강렬한 그녀의 등장은 “남성 중심 서술의 이데올로기적 요소”(Norris 217)에 저항하게 만드는 텍스트의 분열을 가속화한다. 조이스의 남성 중심적 서술은 가브리엘의 시선을 옹호하며 그를 대변함과 동시에 숨겨진 가부장성을 드러내며 분열된다. 노리스는 조이스가 이러한 텍스트의 분열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여성의 억압과 침묵에 기여하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192).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여성의 억압과 침묵에 기여하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화자 즉 텍스트에 의해 직접적으로 말하여지지 않고, 화자가 말하지 않는 틈, 모순, 침묵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두 개의 텍스트로 읽혀야 한다. (Norris 192)

노리스는 이러한 비판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여지지 않고, 화자가 말하지 않는 틈, 모순, 침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두 개의 텍스트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한다(192). 텍스트에서 여성 항의는 말해지지만 침묵 되고, 들리지만 거절되며, 부정되고, 그들의 운명은 이야기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연출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다(Norris 193). 따라서 가브리엘의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화자는 상황을 연출하고 통제하며 미스 아이버스의 권위 도전을 단순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화자의 이야기가 아닌 미스 아이버스의 시선으로 그녀의 음식 거부에 주목해야 한다. 화자의 전략은 결국 조이스의 궁극의 목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가부장제의 내면화 인식 및

거부이다.

화자는 융통성 없는 미스 아이버스가 순수한 예술가인 가브리엘을 계속 뒤통하며 난처하게 만드는 인상을 준다.

가브리엘의 얼굴에 당혹감이 일었다. 그가 매주 수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문학 칼럼을 쓰고 15실링씩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친영파인 것은 아니었다. [. . .]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심문을 들으려 고개를 돌렸다. 가브리엘은 불안하게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그 난처한 상황에서 호의적인 기분을 유지하려 애쓰다 보니 이마가 붉어졌다. (D 164)

이렇게 화자의 시선이 가브리엘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며 그를 항변해 주기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는 융통성 없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국수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인물로 비친다. 게다가 화자의 편파적인 감정 전달은 계속된 아이버스의 추궁으로 안절부절못하는 가브리엘에게 감정 이입하여 우리 또한 불편한 마음이 되게 한다. 그리고 화자는 미스 아이버스의 공격에 가브리엘이 “얼굴을 붉힌다,” “당혹감이 인다,” “마음이 놓였다,” “불쾌한 심정이다”라며 독자들도 가브리엘의 마음에 연이어 동화되도록 한다. 화자는 가브리엘의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미스 아이버스의 내적 심리는 묘사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스 아이버스가 “토끼 눈으로 뻔히 쳐다보며 그에게 불편한 질문을 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했다”(D 165)고 묘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편향적 상황 묘사는 노리스의 주장처럼 권력 전복의 상황과 비판, 도전을 불편해하는 남성 권위의 이중성을 드러나게 한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부장의 배역을 연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마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여성들을 계속해서 타자로 대상화한다.

반면 미스 아이버스는 첫 등장부터 남성 지배적 시선의 대상화에서 벗어나 젠더 수행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녀는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옷차림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보디스를 입지 않았고 아일랜드의 문장과 모토가 새겨진 커다란 브로치를 옷깃 앞에 달고

있었다”(D 162). 이 묘사에 따르면 민족주의자인 미스 아이버스는 옷보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브로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화자가 파인 옷을 입지 않고 여성성을 가리는 옷을 입은 미스 아이버스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의 뉘앙스에서 일반적인 여성들은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깊게 파인 옷을 입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남성의 시선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³⁾ 여성의 남성 시선에 대한 동의는 남성들의 지배적 권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젠더 수행 또한 가부장제에 의해서 마비된 증거이다. 미스 아이버스가 여성적인 옷차림을 거부하는 것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 화자의 지배적 시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민족주의 저변에는 남성에게 의해 규정된 여성성 거부, 젠더 역할 수행 거부가 깔려 있다.

미스 아이버스의 저항적 태도는 가브리엘의 가부장제 권력을 약화한다. 여기에서 다시 화자는 가브리엘의 약화된 심리 묘사를 통해 그의 남성성 불안에 독자들도 동화되도록 이끈다. 가브리엘처럼 독자들 또한 사회가 정해 놓은 질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들도 익숙한 사회규율 측면에서 미스 아이버스가 여성성 수행을 거부하고 가브리엘의 권위적 남성성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두 사람의 젠더 수행이 전복되는 상황은 화자의 시선을 따라 불쾌함을 느끼도록 유도된다. 미스 아이버스가 남성 권위에 도전할 때마다 화자는 가브리엘의 불안을 부각한다. 그녀의 도전은 가브리엘의 젠더 수행을 방해한다. 미스 아이버스가 음식을 거부하고 떠나자 가브리엘은 “자기 때문이 아닐까 잠깐 신경을 쓰다가”(D 170) 곧 자기를 통제하려던 불편한 힘이 사라졌음에 기뻐하며 가부장적 우월성, 젠더 수행을 되찾는다. 불안 요소로 작용하던 미스 아이버스의 퇴장은 가브리엘의 남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

3) 여성들의 전통적인 전시적 역할에 있어 여성들은 보여짐과 동시에 전시되며, 그들의 외모는 강력한 시각적, 에로틱한 인상을 주기 위해 기호화되어 마치 보여지는 대상임을 내포한다(Mulvey 808-09).

가브리엘은 미스 아이버스가 가버리자 “과감하게 식탁 상석을 차지하고는 고기 자르는 칼의 날을 살펴보고 나서 포크를 힘 있게 거위에 꽂아 넣는다”(D 171). “그는 잘 차려진 식탁의 주변 자리에 앉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자리를 되찾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진다”(D 171). 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미스 아이버스의 “토끼 같은 눈이 자기를 쫓고 있는”(D 165) 상황에선 그 파티의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그녀의 추궁으로 유럽을 동경하는 마음을 모두 내보이고 “친영파”(D 165) 소리까지 들어 주눅 들었던 터에 다시 상석에 앉아 자신감을 되찾는다. 미스 아이버스의 통제에서 벗어나 포크를 힘 있게 거위에 꽂아 넣는 행동(D 171)은 그가 가진 힘과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서 식민 지배의식과 여성 억압에 대한 은유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미스 아이버스의 공격으로 인해 가브리엘이 보이는 남성성에 대한 불안은 젠더 역할 수행의 착오에서 오는 불안으로 읽을 수 있다. 남성이 유지하고 가져야 하는 권력이 위협받을 때 불안은 나타나고 커진다. 더욱이 그 상대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여성일 때, 가브리엘은 돌아올 반박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 손상에 대해 불안과 위협을 느낀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여성들에게는 오만하고 우월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는 자신을 당황케 하는 아이버스에게는 찢찢매면서 그를 모르칸 집안의 상전으로 여기는 그의 이모들에 대해서는 “단지 무지한 늙은 여자들일 뿐인데 무엇을 신경 쓴단 말인가”(D 167) 하며 무시한다. 하지만 아이버스에게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그녀가 가진 지식수준이나 순종하지 않는 성격상 말다툼이 불거진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체면의 상실 여파가 클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그는 자신들의 대화가 혹여 다른 손님들에게 들려 그의 권위가 흔들릴까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핀다(D 164). 가브리엘은 남성성을 수행하느라 여전히 가부장적 마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와는 달리 미스 아이버스는 가브리엘과의 언쟁 후에 화려한 만찬을 거부하고 모르칸 집안의 대체 가부장 가브리엘에 의해 분배될 음식을 거

부함으로써 가부장제가 바라는 젠더의 수행을 거부한다. 『죽은 사람들』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은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행동으로서 기능한다.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이 사회적 제재와 금기에 의해 강요된 수행적인 성취라고 주장한다(520). 그렇다면 미스 아이버스의 젠더 수행 거부도 사회적 제재까지 각오하는 저항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미스 아이버스는 “배고프지 않았고 예정보다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D 170) 10분이라도 더 머물기를 부탁하며 음식을 권하는 이들에게 끝내 작별 인사한다. 모르칸 자매와 메리 제인, 그레타 콘로이는 당황해서 그녀를 잡는다. 만찬 식탁에 잠시라도 앉기를 거부하고 돌아서는 완강함에 그레타는 “이상한 분이네요”(D 170)라며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같은 반응에서 보이는 미스 아이버스의 행동에 대한 부정이나 배제 또한 버틀러가 말한 “차별”(522)일 수 있다. 기존 젠더 역할에 의문을 품지 않고 충실히 살아온 여성들의 눈에 미스 아이버스는 자신들의 파티의 흥을 깨는 불편한 인물로 남을 뿐이다. 모르칸 자매는 가부장의 부채를 가리기 위해 가브리엘로 하여금 주최자의 역할인 거위를 잘라 배분하는 역할을 대신 맡긴다. 만약 미스 아이버스가 만찬에 참석했다면 미스 아이버스는 대체 가부장 가브리엘이 잘라 건네는 음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먹어야 했을 것이다. 가브리엘은 상석에 앉아 잘 익은 통통한 거위를 자르며 만찬 식탁의 여성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날개인가요? 아니면 가슴살을 드릴까요?”(D 171) 차례대로 묻는다. 이러한 상황이 미스 아이버스와 가브리엘에게 지워진 사회가 바라는 젠더 수행인 것이다. 가브리엘은 가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즐기지만, 미스 아이버스는 그 젠더 수행을 거부하고 떠난다.

『죽은 사람들』에서 미스 아이버스는 강력하게 가브리엘의 의견에 반박하고 만찬을 거부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담론과 가부장적 권력에 저항한다. 비순종적인 음식 거부 행동은 미화된 여성성 거부이자 상징적 젠더 역할 수행 거부를 의미한다. 아이버스는 사회경제적 여유 때문에 『더블린 사람들』의 여성들 중 유일하게 뚜렷한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

다. 그러한 독립성은 그녀에게 남성 권력 아래에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가부장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준다. 그녀의 주체성은 다른 여성들이 마비된 의식으로 순종하고 음식을 갈구하고 있을 때, 음식 거부로 자신의 저항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스 아이버스는 음식 거부와 여성성 거부를 통해 사회 담론이 여성이라고 규정해 놓은 젠더의 틀에서 벗어난다. 이 때문에 미스 아이버스는 남성 화자의 왜곡을 통해 완곡하게 식사하고 가기를 바라는 모르칸 집안사람들의 선의를 뿌리치고 냉정하게 가버리는 고집 센 여성으로 그려지며(D 170) 그녀의 행동은 부정당한다. 거기에 가브리엘은 불쾌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미스 아이버스를 바라다주겠다고 제의하는 신사적 선량함으로 포장된다(D 170).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결말에서 가브리엘 또한 남성 중심적인 화자를 떨구어 내고 자신의 젠더 역할극을 인지하며 마비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인다.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에서 남성에게 대항하는 여성을 재현했고 여성의 필수 가치들로 덧씌워진 순종적 여성 담론 해체를 시도한다.

III. 『젊은 예술가의 초상』: 단테의 젠더 역할 수행 전복

『초상』⁴⁾에 나타나는 크리스마스 만찬의 음식 거부와 언쟁은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에 이어 조이스의 새로운 여성 저항 재현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사례로서 매우 중요하다. 『초상』의 크리스마스 만찬 자리에서 단테는 가정의 최고 권위자인 스티븐의 아버지 디덜러스 씨(Mr. Simon Dedalus), 그의 친구 케이시 씨(Mr. Casey)와 만찬 초반부터 언쟁을 시작한다.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는 신부들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가톨릭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시작하고, 단테는 그런 발언

4) 본고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해석은 민음사, 2001년 출판, 역자 이상옥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인용함.

에 빠짐없이 반박한다.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는 “신부들이 하느님의 전당을 투표소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신부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겠다”(P 29)라는 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톨릭 신봉주의자인 단테를 자극한다. 이러한 도발적 발언에 단테는 “신부들은 항상 옳고, 양떼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P 30)을 주장한다. 남성들과의 대립에서 단테는 완강하게 자기 의사를 주장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순종적 모델을 깨고 남성 권위에 도전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도전이 음식 거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단테가 왜 음식 거부로 그 자리의 불편감을 표현하고 저항해야 했는지, 그리고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과 단테의 음식 거부의 병치가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하여 『초상』에서 인습적인 관행을 깨는 주도적 여성 인물, 단테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전통적 젠더 수행 거부가 가부장의 권위 상징의 공간인 만찬 식탁에서 음식 거부의 저항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와 공모한 남성 중심적 화자의 시선에 지배되어 여전히 단테를 크리스마스 만찬을 망친 여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화자의 편협한 젠더 역할 인식에 대해 논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처럼 『초상』의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도 “서술과 가부장제의 결탁”(Murfin 183)이 드러난다. 이 장면은 가부장적 아버지와 케이시 씨에게 감정 이입한 어린 스티븐의 시점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초상』의 단테 또한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처럼 남성 중심적 화자의 시선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망친 드세고 고집 센 가톨릭 신봉주의자로만 대부분 인식되며, 그녀의 행동 안에 내재된 가부장제 저항 의식은 간과된다.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적 이미지는 가부장제 측면에서 볼 때, 순종적인 여성과 순종을 거부하는 여성의 이분법적 이미지로 대체되며,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단테는 화자에 의해 여성스럽지 못한 여성으로서 부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리스가 지적한 것처럼 남성 중심적 화자와 사회 이데올로기에 맞춰진 시선을 거두고 크리스마스 만찬을 엉망으로 만든 드센 여성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었던 단테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록 『초상』에서 단테가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고 가톨릭 맹신자라는 한계에 갇혀 주체적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물과는 별개로 여겨져 왔으나, 단테는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보다 더욱 뚜렷하게 전통적 여성 역할 수행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미스 아이버스의 경우가 가브리엘의 가부장 권력이 극대화되어 표현될 화려한 만찬 식탁에 앉기를 거부하고 만찬 장소를 스스로 떠난 참석 거부였다면, 단테는 만찬 식탁에 참석하여 가부장 디덜러스 씨가 음식을 이용해 자신을 배제하는 무례함에 정확한 음식 거부 행동을 보여준다. 이를 시작으로 그녀는 남성 권력의 판세를 완벽히 뒤집고 만찬 식탁을 뛰쳐나감으로써 남성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저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테도 미스 아이버스처럼 사회경제적 불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에서 여성 억압과 불평 등의 상황을 더 잘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테는 그녀의 오빠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똑똑한 여성이다(P 35). 스티븐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수녀가 되려다가 그만 두었는데, 단테는 그녀의 오빠가 원주민들에게 값싼 장신구나 흙 있는 도자기 등을 팔아 돈을 벌던 시절에 미국 동부에 있는 알리게니 산맥의 수도원에서 뛰쳐나왔다(P 34-35).⁵⁾ 디덜러스 씨와 찰스 아저씨(Uncle Charles)는 입을 모아 단테가 영리한 여자이고 박식한 여자라고 말한다(P 7). 이러한 사회적 인정에도 단테의 주체적 의사 표현은 화자에 의해 오도된다.

『초상』의 화자는 종종 어린 스티븐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에 편파적이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말투와 시선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배경을 묘사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벽난로 속에는 수북이 쌓인 장작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가지마다 담쟁이 넝쿨이 휘감긴 상들리에 아래 크리스

5) 리처드 엘먼(Richard Ellmann)에 따르면 단테의 원래 모델인 리오던 부인은 그녀의 오빠가 아프리카 원주민과의 거래로 얻은 재산을 그녀에게 남겨주자 수녀가 되려는 야망을 버렸다고 한다(Notes 59, P 285).

마스 식탁이 차려졌다”(P 25-26)는 묘사에서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저녁 분위기에 만족하는 어린 스티븐의 행복감이 그대로 전달된다. 케이시 씨가 그의 목 안에 은화 지갑이 들어있다는 말을 믿어 왔던 스티븐을 놀리느라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선 부위를 툭툭 치자 스티븐도 함께 웃는다”(P 26). 스티븐과 케이시 씨 사이의 화기에애한 분위기 연출은 케이시 씨와의 친밀감을 보이는 것으로 스티븐의 호의를 노출함으로써 독자들 또한 케이시 씨에게 호의를 갖게 만든다. 이러한 호의적 시선은 만찬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지속된다. 일례로, “스티븐은 단테와의 언쟁 중간에 화가 나서 두 손을 맞잡은 채 식탁 건너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케이시 씨를 다정하게 쳐다본다”(P 34). 그리고 케이시 씨가 어둡고 사나운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시커먼 눈만은 사납게 보인 적이 없었고, 그 나지막한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흐뭇하다”(P 34)고 표현하며 케이시 씨에게 애정을 드러낸다. 스티븐은 “그런 아저씨가 왜 무슨 이유로 성직자들에게 반대하는 건지 의아해한다”(P 34). 점점 언쟁이 심화되어 케이시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인해 이글거리는 상황에서도, “스티븐은 케이시 씨의 말에 전율을 느끼고, 케이시 씨의 열기가 자기 얼굴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P 38) 케이시 씨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이입한다. 불화로 끝나버리는 만찬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스티븐이 아버지와 케이시 씨에게 편파적으로 감정적 동요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단테가 분노로 만찬 장소를 뛰쳐나간 후, 화자는 케이시 씨가 “가슴 아프게 흐느껴 울었다”(P 39), “고통스럽게 흐느꼈다”(P 39)라고 묘사함으로써 그의 아픔에 가슴 아프게, 고통스러운 심경으로 동조한다. 이처럼 케이시 씨와 아버지에 대한 스티븐의 우호적인 호의는 단테와의 언쟁 내내 이들에게 독자들까지 감정적으로 동조하도록 하며, 단테를 만찬을 망친 주역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한다.

반면, 스티븐의 의식을 따라가는 화자는 가부장제에 마비된 시선으로 단테를 바라본다. 집안의 분위기를 따라 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스티븐은 아버지와 케이시 씨에게 감정이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 또한

단테가 만찬을 망친 것으로 읽을 가능성이 크다. 다니엘 멀홀(Daniel Mulhall)은 이 장면을 단테가 크리스마스 만찬 식탁에서 파넬을 비난하고 가톨릭 편에 서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라고 언급한다(33). 분명 디덜러스 씨와 케이지 씨가 단테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녀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멀홀의 표현처럼 단테의 파넬 비난과 가톨릭 사제 옹호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스티븐의 의식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로 단테의 파넬 혐오를 그녀의 개인사와 결부시켜 버리고 단테의 입장을 단순화시켜 버린다. 그는 “단테가 수녀가 되려다가 뛰쳐나온 여자라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는 그녀가 파넬을 혹평하는 것이 수녀원을 그만둔 여자이기 때문”(P 34)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파넬의 스캔들에 대한 단테의 실망과 배신감에 대한 스티븐의 감정적 동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의 의식은 개신교인 아일랜드와 놀지 못하게 했던(P 34) 단테의 종교적 편협함까지 함께 떠올리며 단테의 종교적 맹신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하여 가톨릭 사제에 대한 단테의 맹목적 추종의 불편함 때문에 독자 역시 자칫 스티븐처럼 디덜러스 씨와 케이지 씨에게 동조하게 된다. 이처럼 화자의 편향적 서술은 남성들의 좌절된 민족의 독립과 파넬을 잃은 슬픔에 적극적으로 감정이입 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숨은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과 단테의 가부장제 저항 문제를 놓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실,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은 사회제도에 의해 충실히 부여된 젠더 역할과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그대로 재현한다. 디덜러스 씨는 가부장의 권위를 보이고 성공적으로 만찬을 이끌기 위해, 가게 주인이 최고급품임을 강조하는 칠면조를 1기니⁶⁾나 주고 산다(P 28). 서빙된 음식에 대한 통제 또한 모두 디덜러스 씨의 권한이었다. 디덜러스 씨는 가장자리에 진주 같은 물방울이 반짝이며 매달린 무거운 뚜껑을 쟁반에서 벗기는 행동을(P 28) 시작으로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음식과 부엌을 총괄하며 음식 준

6) 기니(guinea)는 영국의 옛날 금화로 21실링(shillings)에 해당한다. 당시 4인 가족 일주일 최저 생계비 정도의 금액이다.

비를 하는 것은 디털러스 부인의 몫이었지만, 그 음식 통제의 권력자는 디털러스 씨이다. 이 같은 권력을 이용해 디털러스 씨는 그의 감정을 음식 분배의 불공평함으로 드러낸다.

디털러스 부인이 말했다. “사이먼, 리오던 부인에게겐 소스도 드리지 않았군요?”

디털러스 씨는 소스 그릇을 잡았다.

“그런가?”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리오던 부인, 미안합니다. 내가 눈이 멀었군요.”

단테는 두 손으로 자기 접시를 가리며 말했다.

“됐습니다. 치지 않겠어요.” (P 29)

단테에게만 소스를 권하지 않은 이 무례한 행동은 모두에게 있어서 단테가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만찬의 주인, 디털러스 씨의 의사 표현이다. 그 차별은 디털러스 부인이 “리오던 부인에게겐 소스도 드리지 않았군요”(P 29)라고 충고를 건넬 때까지 지속된다. 디털러스 씨는 사과했지만 “내가 눈이 멀었군요”(P 29)라고 정중함이 아닌 자기 비하적인 농담으로 받으며 더욱 예의를 벗어난다. 그는 단테가 거절한 “소스를 어린 스티븐의 그릇에 잔뜩 부어버린다”(P 29).⁷⁾ 어린 스티븐의 의사를 개의치 않는 이러한 행동은 전형적인 지배자의 권위적인 모습이다. 이는 가부장의 말을 잘 들으면 풍부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단테에게 있어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는 평소에 순종적이지 않은 여

7) 설전 상황에서도 디털러스 씨는 계속해서 음식을 잘 먹는다. 여성의 식욕은 억제와 조절을 요구하는 반면 남성의 탐식은 정당화되고 권장된다(보르도 28). 똑같은 상황에서 스티븐의 어머니는 별로 먹지 않았고, 단테 부인은 무릎에 손을 놓은 채 앉아 있었다(P 31). 단테, 디털러스 부인, 어린 스티븐까지 거의 먹지 않는다. 단테는 소스 거부 후 뒤이은 정치 종교적 언쟁의 불쾌감과 모욕감으로 만찬 장소를 떠나고, 평소에도 여성의 미덕으로 억제되었을 디털러스 부인의 식욕은 설전 상황에서 더욱 억제된다.

성에 대한 무언의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디덜러스 씨는 이후에도 다른 손님들을 차례대로 살뜰히 챙기지만 단테만은 예외이다. 그는 단테에게 식사 내내 음식을 더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권유하지 않는다. 디덜러스 씨가 스티븐과 찰스 아저씨의 그릇에 소스를 많이 제공하는 행동과 칠면조 고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배제는 단테에 대한 처벌 행동일 수 있다.

이 장면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는 뒤이은 발언들로 인해 강화된다. 스티븐의 접시에 소스를 부은 후, 디덜러스 씨는 찰스 아저씨에게 “잘 드시고 계시냐?”며 묻는다. 이 질문에 찰스 아저씨는 “잘 먹고 있단다”(Right as the mail, P 29)라고 대답한다.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을 연상케 하는 이 대답은 만찬이 흡족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만찬을 주최한 디덜러스 씨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도착했음을 “편지처럼 확실하게 여기 와 있어요”(Here I am as right as the mail, aunt Kate! D 153)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가브리엘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첩은 로얄 메일⁸⁾이 악명높은 제국주의적 제도였으며, 이것은 남성주의와 제국주의 이념을 형성하여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 사이의 판단과 위계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27). 지배는 그 자체로 지배적인 질서, 구조, 성별, 인종, 계급, 위계 질서, 주변부 등의 차별을 부과하기 때문이다(Cheng 27). 또한 “mail”은 발음이 서로 같은 “male”의 은유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며 남성 가부장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찰스 아저씨의 답변 또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옹호로 읽힐 수 있다.

8) 여기에서 메일은 영국의 로얄 메일(Royal Mail)에서 온 말로서 그 당시 로얄 메일은 단순 우편 서비스라기보다 제국 간의 편지, 문서, 정보 교환을 책임지며, 제국주의적인 목표인 국가 간 연결과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통신이 빠르고 효율적일수록 제국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로얄 메일은 제국주의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은유적 언어를 통해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단테와의 언쟁에서 밀리자 두 남성은 야비한 방식으로 단테를 치욕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파 이야기를 꺼낸다. 노파 에피소드에서는 여성인 노파가 파넬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주도권을 갖고, 남성인 케이지 씨가 반대로 입에 입담배를 가득 물고 있는 채로 발언권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P 36). 노파는 “성직자를 못살게 하는 놈! 파리의 싹 자름! 미스터 폭스! 키티 오세이!”(P 35)라고 소리치며 파넬 모독 발언을 한다. 케이지 씨는 담배 씹은 물이 가득한 채로 침을 뱉는 척하며, 그 노파에게 “뉘”(P 36) 하고 뱉어버리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수동적 상황을 벗어나고 남성 지배적 권위를 복원한다. 이 상황의 권력 역전 또한 남성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디덜러스 씨와 케이지 씨는 노파를 모욕 주고, 그녀를 마치 또 다른 음식처럼 만찬 식탁의 화제거리로 올리며 노파를 비웃고 농락한다. 이는 그 노파와 단테 둘 다에 대한 모욕이다. 그들은 노파 이야기를 “digest”(P 34), “sweet”(P 35)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입으로 씹어버려야 하는 음식처럼 표현함으로써 조롱을 강화한다. 나아가, 디덜러스 씨의 “고기를 이빨로 찢었고”(P 35)와 같이 입으로 행하는 폭력이 계속해서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입은 고기와 같은 살생의 의미를 내포하는 음식을 뜯고, 찢고, 부수는 행위를 시작으로, 욕설, 비난 등의 말로 하는 위협과 폭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두 남성은 노파에게는 침을 뱉는 행동과 더불어 그 이야기의 노파를 군침 도는 음식처럼 비하해서 대하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언어적 폭력을, 단테에게는 노파에 대한 비난과 침 뱉음을 그녀에게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단테를 깎아내리고, 더불어 간접적인 폭력을 면전에서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는 양가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폭력성은 이미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 곳곳에서도 관찰된다. 디덜러스씨는 칠면조 부위를 “칼로 찢고”(P 31) 들어서 부위를 권하거나(P 31-32), “얼굴을 찌푸려 사나운 짐승의 표정을 짓고 입술로 짹짹 핥는 소리를 내면서”(P 32)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은 언쟁으로 통제되지 않는 단테를 지배하고자 하는 위협이다. 디덜러

스 씨는 설전 중 단테의 말에 “접시 위에도 나이프와 포크를 내던진다”(P 32). 케이시 씨 또한 단테의 말에 분노를 못 참고 무례하게 접시를 식탁 가운데로 밀어붙인 후 두 팔꿈치를 식탁에 기대며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P 33). 계속된 설전에 결국 “케이시 씨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식탁을 팡 내리쳤다”(P 38). 두 남성은 음식과 관련된 나이프, 포크, 식탁 등의 집기들을 내던지거나 내리치면서 음식이 차려진 만찬 식탁의 질서를 혼돈의 상태로 몰아간다. 질서 잡힌 상황을 언제든 원할 때 깰 수 있다는 힘의 과시는 남성 지배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질서를 깨는 폭력적 행동을 통해서라도 두 남성은 권위를 찾으려 한다.

디덜러스 씨가 음식을 이용해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한 것처럼 단테도 자신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저항 의지를 표현한다. 단테는 디덜러스 씨가 소스를 주려 하자 단호하게 두 손으로 자기 접시를 막으며 “됐습니다. 치지 않겠어요”(P 29)라고 거부 의사를 보인다. 단테는 소스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주체성을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기대되는 젠더 역할에 반발하고 있다. 단테의 소스 거부는 권위적 가부장에 대한 순종적인 젠더 역할 수행 거부를 상징한다. 그녀는 음식 거부를 통해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권력의 흐름을 깨고 권력 구조의 재편성을 시도한다. 또한 단테는 자신의 식사 선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나아가 단테는 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굴하지 않고 같이 언성을 높인다. 그러나 욕설을 쓰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치에 개입하는 아일랜드 사제들에 대한 연이은 비난에 단테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집안에는 행운도 은혜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P 32)하고 응수한다. 이에 디덜러스 씨는 흥분해서 “접시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내던지고”(P 33) 결국 사제들을 향해 “개자식들 같으니라고!”(P 33)하고 욕설을 하며 고향을 지른다. 화가 난 단테는 이러한 욕설에 “그분들의 행동은 옳았어요. 그들은 주교님들과 신부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명예를 돌려야 한다고요”(P 33)라고 맞서 주장하고, 계

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개신교도라고 해도 오늘 저녁에 내가 들은 것 같은 그런 야비한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P 34), “우리가 만약 성직자들에게 얽매어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야훼의 눈동자 같은 분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범하지 말라. 그들은 내 눈동자니라 라고요”(P 37)라며 언쟁을 이어간다. 툴란(Michael Toolan)은 이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테는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중산층 여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토론 주제에 대해 암묵적인 규칙으로 제약을 받는다(397).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단테의 말에는 예상치 못한 격렬함이 있고, 그녀가 주도하는 대화 빈도는 예상외로 높으며, 남성들의 의견에 침묵으로 인내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그녀의 행동은 의심의 여지없이 남성들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응과 단테에 대한 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된다(397). 즉 순종적이지 않은 그녀의 행동이 남성들에게 “선동”(incitement, 397)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누르기 위해 더욱 격렬해진 것이다. 결국 “단테는 미친 듯이 의자를 밀어젓히고 식탁을 떠난다”(P 39).

그런데 우리는 언쟁에서 남성들의 저속한 표현과 폭력적 행동에 대한 비판보다 단테의 거침없는 언어적 태도가 왜 더 불편하다고 느껴지는지, 그러한 태도의 상황에서 왜 우리는 여성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거두고 인내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아마도 이에 대한 대답은 파티 참석자들의 불편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단테를 제외한 파티 참석자들이 가부장제에 세뇌되어 있음은 그들의 충실한 젠더 수행에서 드러난다. 크리스마스 만찬 식탁은 남녀 간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장소로서, 만찬의 참석자들은 단테를 제외하고 모두 각자의 젠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디털러스 씨는 가부장으로서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질문도 주도적으로 이끈다(P 32). 모두 디털러스 씨가 분배하는 음식을 받고 스티븐은 자신에게 너무 많이 부어지는 소스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자가 권력자가 된다. 스티븐의 식전

기도도 아버지의 허락과 동시에 시작된다(P 28). 디덜러스 부인 역시 오직 만찬의 분위기만을 염려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는다. 나아가, 그녀는 단테가 두 명의 남성에게서 물리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재하기보다, 단테가 인내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녀를 말린다: “리오던 부인 제발 빌게요, 이제 그 문제는 좀 덮어두시죠”(P 30), “케이시 씨, 여보 사이먼, 그만들 하세요”(P 31),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오늘만은 정치적 토론은 삼가요”(P 30), “진저리가 나네요, 일 년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진저리 나는 논쟁을 그만둘 수 없나요?”(P 33), “리오던 부인, 저 이들에게 대꾸하느라 흥분하지 마세요”(P 38) 라고 말하는 것이다. 디덜러스 부인이 보이는 침묵하는 희생은 단테의 저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단테만이 강경하게 “입을 다물 수는 없어요. 배교자들이 내 교회와 종교에 대해 모욕하고 침을 뱉을 때 나는 나서서 지킬 거예요”(P 33)라고 더욱 힘주어 선언한다. 계속해서 단테는 “파넬은 배반자요, 간음자니까 성직자들이 그를 버렸다면 그는 잘한 것이죠. 성직자들이야말로 늘 우리 아일랜드의 진정한 친구예요”(P 38), “하느님과 종교는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선다고요!”(P 38)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모두가 가부장제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단테만이 가부장제의 마비에서 빠져나와 젠더 불균형의 부당함에 저항한다. 그리고 디덜러스 부인의 침묵을 옹호하는 화자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모든 만찬 참석자가 단테의 침묵 거부를 불편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의 뿌리 깊은 원인이 가부장제의 세뇌에 기인한다는 인식과 마주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노리스가 지적했던 여성의 억압과 침묵에 기여하는 예술을 비판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화자의 ‘모순’과 ‘격차’를 느끼게 되고, 단테의 여성 역할 수행 거부가 히스테리적 거부가 아니며 가부장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당함에 반발하는 파격적인 저항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단테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주장을 할 수 없고, 자기주장을 해서도 안 되는 인형 같은 젠더 역할을 벗고 오히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다. 버틀러는 젠더란 시간 속에서 유한하게 구성된 정체성, 즉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확립된 정체성이라 말한다(519).

젠더는 안정적인 정체성이나 다양한 행위의 근원이 되는 장소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시간 속에서 불분명하게 구성된 정체성, 즉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을 통해 확립된 정체성이다. [. . .] 만약 젠더 정체성의 근거가 겉보기에 한결같은 정체성이 아니라 시간을 통한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이라면, 젠더 변환의 가능성은 그러한 행위들 사이의 임의적인 관계에서, 다른 종류의 반복의 가능성에서, 그 양식의 깨짐, 또는 전복적인 반복에서 발견된다. (Butler 519-20)

버틀러는 이렇게 형성된 젠더 정체성이 양식화된 행동에 반하는 또 다른 행동의 반복, 양식화된 행동의 깨어짐의 반복에서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520). 양식화된 젠더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단테의 여성성 수행 거부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의 반복이 깨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녀의 거부 행동이 수행될 때, 전통적인 순종적 여성의 역할 수행성은 어느 시점에서 결국 전복될 수도 있다. 단테는 음식 거부와 더불어 언어적 대항으로 남성들에게 맞섬으로써 젠더 역할을 거부한다. 단테가 만찬 참석자 모두 그녀에게 기대했던 젠더 역할을 거부하고 의외의 거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때 깨어질 수 없을 것만 같던 젠더 역할은 정형성에서 벗어나 구조 변화의 기회를 얻는다. 단테는 가부장의 권위보다 자신의 신념과 주체성을 그 우위에 두고 가부장의 권력을 의외성을 띤 젠더 역할 거부로 무너뜨린다. 그 깨뜨림 때문에 가부장적 남성들은 당황하고 그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의견의 정당함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언어적 폭력과 폭력적 행동을 동원하여 공격한다. 단테는 그녀에게 권해지는 소스 거부를 시작으로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떤 남성에게도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 정체성 모델이 된다. 단테의 소스 거부는 자기주장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단테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표현한다. 그녀의 행동은 디털러스 부인의 만찬 내내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순종적인 여성 역할 수행과 대조를 이루고,

더 나이가 이러한 단테의 여성 정체성 전복 행동은 스티븐의 가부장적 정체성에 “양식의 깨짐”(Butler 520)으로 작용한다.⁹⁾

『초상』에서의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은 그 당시 분열된 아일랜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은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대기근의 참사를 겪으면서, 삶의 각박함으로 인해 더욱 가부장제와 가톨릭 종교의 속박으로 마비된다. 만찬 장면의 등장인물들 모두 사회적 제도, 종교 등에 의해 마비된 의식을 보인다. 하지만 젠더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단테는 분명히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세우며 음식 거부 행동으로 남성 지배에 반발한다. 그녀의 음식 거부 행동은 마비된 사람들의 의식과 대비를 이루며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저항 수단이 된다.

9) 이 경험으로 스티븐은 단테의 음식 거부가 곧 저항의 신호임을 이해한다. 단테가 소스를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스티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잔뜩 부어버리는 아버지에게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무력감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스티븐의 접시에 음식을 잔뜩 담는(P 31) 아버지의 두 번째 소스 제공에서도 반복된다, 이때 스티븐은 거부의 욕구를 경험한다. 단테의 음식 거부 이후에 스티븐은 『몬테크리스토 백작』(*The Count of Monte Cristo*)을 탐독하며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원수의 부인이 된 메르세데스에게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을 재현한다. 그는 자신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여기면서 오만한 거부의 몸짓으로 포도를 권하는 메르세데스에게 “부인, 나는 머스켓 포도를 먹는 일이 없답니다”(Madam, I never eat muscatel grapes, P 65)라고 음식을 거부하는 자신을 상상한다. 스티븐은 순응이 아닌 거부를 통한 자기주장을 터득해 나간다. 그는 순종의 미덕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그의 어머니와 같은 순종이 아닌 단테와 같은 저항을 택한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주인공 에드몽 단테스가 감옥을 탈출하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다시 나타나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초상』에서 스티븐이 상상하는 장면은 에드몽 단테스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원수에게 시집을 간 옛 연인 메르세데스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그는 메르세데스가 권하는 머스켓 포도를 거절한다.

IV. 결론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의 미스 아이버스에 이어 단테까지 여성의 음식 거부를 반복하여 재현한다. 미스 아이버스의 거부가 의외성을 띤 젠더 역할 수행 거부의 초기적 형태라면 단테의 거부는 완전한 젠더 역할 수행 거부의 전복 사례를 보여준다. 특정 상황에서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가부장제의 젠더 억압에 대한 저항이며, 그녀들은 남성 가부장이 공급하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젠더 역할 수행을 거부한다. 이들의 젠더 역할 수행 거부는 남성 중심적 화자에 의해 자칫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으나 화자의 편향된 렌즈를 걷어내고 보면 불균형한 권력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정당한 저항임을 알 수 있다.

「죽은 사람들」과 『초상』 속 여성들의 음식 거부 장면에서 조이스의 화자가 이끄는 남성 중심적 시선은 젠더 억압과 젠더 불균형을 강화하는 듯 보이나, 사실은 『초상』에서 디덜러스 씨와 케이시 씨의 남성 위압적 분위기를 그대로 서술하고 그에 반발하는 단테의 과격적이고 격렬한 거부 행동을 통해 그 당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수직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여성들의 음식 거부는 덧씌워진 젠더 역할에 대한 거부이며 가부장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한 거부이다.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최소한 남성 권위적인 가부장제에 마비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조이스는 자신의 소설에서 순종적인 여성상의 재생산 대신 주체적인 저항 여성들의 노출을 통해 가부장제가 생산하는 여성 억압의 불합리함을 제시하고 새로운 젠더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문학에서의 젠더 불균형의 재생산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작품을 통해 젠더 불균형에 균열을 일으킨다. 조이스의 소설은 자아의 해방을 탐구하고, 사회적인 기대와 규율에 도전하는 여성의 저항 경험을 보여준다.

(제주대)

인용문헌

- 보르도, 수전.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옮김, 또하나의문화, 2003.
- 조이스, 제임스. 『더블린 사람들』. 이강훈 옮김, 열린책들, 2013.
- .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이상욱 옮김, 민음사, 2001.
- Butler, Judith.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vol. 40, no. 4, 1988, pp. 519-31.
- Cheng, Vincent J. “Empire and Patriarchy in ‘The Dead.’” *Joyce Studies Annual*, vol. 4, 1993, pp. 16-42.
- Ellmann, Maud. *The Hunger Artists: Starving, Writing, and Imprisonment*. Harvard UP, 2014.
- Joyce, James. *Dubliners*, edited by Maggot Norris, Norton & Company, 2005.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2003.
- Kho, Younghee. “Let Go, Let Fly, Forget”: *The Famine, Food, and Regulation in James Joyce and Samuel Beckett*. Dissertation, U of Tulsa, 2013.
- Mara, Miriam O’Kane.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Food.” *New Hibernia Review*, vol. 13, no. 4, 2009, pp. 94-110.
- Mulhall, Daniel. “Parallel Parnell: Parnell Delivers Home Rule in 1904.” *History Ireland*, vol. 18, no. 3, 2010, pp. 30-33.
- Mulvey, Laura.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Film Theory and Criticism: Introductory Readings*, edited by Leo Braudy and Marshall Cohen, Oxford UP, 1999, pp. 803-16.
- Murfin, Ross C. “Feminist Criticism and ‘The Dead.’” *The Dead*, edited by Daniel R. Schwarz, St. Martin’s Press, 1994, pp. 178-90.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Pennsylvania UP,

2003.

Toolan, Michael. "Analysing Conversation in Fiction: The Christmas Dinner Scene in Joyce's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oetics Today*, vol. 8, no. 2, 1987, pp. 393-416.

Abstract

The Male Narrator's Distorted Narration: Dublin Women's Denial of Food in James Joyce's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Rian Ko

In “The Dead”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ames Joyce depicts Dublin women who publicly refuse food. Miss Ivors in “The Dead” and Dante in *Portrait*, with their socioeconomic privilege of independence, undermine the authority of patriarchs by the act of refusing food. In the discussion of “The Dead,” Margot Norris points out that Joyce’s male narrator often colludes with patriarchal structures, attempting to subordinate women. I observe the same collusion in the Christmas dinner scene in *Portrait* in which the male narrator sympathizes with the astonishment of little Stephen and the agony of Parnellite men. In such a context, Dublin women’s refusal of food can be a symbolic rejection of expected gender performances. Judith Butler claims gender identity as a performative accomplishment compelled by social sanction and taboo. She describes gender identity as the stylized repetition of acts through time and suggests the possibilities of gender transformation being found in the breaking or subversive repetition of gender performance. The refusal of food by Dante and Miss Ivors can also represent a subversive act that disrupts what Butler calls the “stylized repetition of acts” (519). In the end, my paper argues, Joyce compels us to recognize the social oppression women face under patriarchy by revealing the patriarchal perspectives.

■ **Key words** : James Joyce, women, food, patriarchy, resistance, male narrator
(제임스 조이스, 여성, 음식, 가부장제, 저항, 남성 화자)

논문접수: 2024년 5월 31일

논문심사: 2024년 5월 31일

게재확정: 2024년 6월 21일